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10. 12.(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·과장 서정관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안일찬, 주무관 유진욱 ·☎ (044) 201-3573, 3552, 3562, 3563	
보도일시		2021년 10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

-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이행력 강화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 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우선,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.
 -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, 국토안전관리원,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·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 -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·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,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.
 - 또한,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,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·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,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.
 - 이와 함께,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*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* '21년 건설현장 점검량을 3배이상 확대('20년 6,212개소 → '21년 19,850개소)

□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.

○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,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.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(csi.go.kr)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.

- 이와 함께,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,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.

○ 또한, “건설안전 365”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하여,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.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“건설안전 365”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,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.

○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(Webinar)도 추진하여, 사고사건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,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 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다.

□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.

○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*에 대한 컨설팅·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착공 전 계획서 검토,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

○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·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, 안전 체계·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

지원한다. '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, '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이와 함께, 대형 건설사*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·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**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**를 **건설안전 종합정보망** 내에 신설하였다.

* 교육자료 협조 건설사 : 삼성물산, 대우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호반건설, 쌍용건설(이상 '21년 시공능력평가 순) 등

-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“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, 기업,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조성이 중요함”을 강조하면서,

- “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,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,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·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35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